

“5·18 40주년 전에 美 자료 받아내겠다”

외교부, 미국에 요청한 5·18자료 확보 구체화 “요청 문건 공개면 진상규명 결정적 계기 될 것”

미국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한 사실(광주일보 2019년 11월 26일 자 1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요청 문건을 공개할 경우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 진상규명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국회를 방문, 광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이전에 미국 정부의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광주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에 따

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미국 측에 요청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과 그동안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이전에 미국 측의 자료가 일부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자료는 10개 항목 대부분에 속해 포함된 문서 수천건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미 공개된 국무령-한국대사관 간 오고간 전문과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 삭제된 부분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백악관 상황실에서 1979-80년 작성한 한국 군사안보-광주 관련 기밀문서자 대상이다.

또 ▲국방정보국 문서 중 1979-80년 작성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한미연합사-미8군-국방부 간 오고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년12월12일-1980년 5월30일) 중 기밀 처리된 문서 ▲1980년 5월 당시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도 공개를 요청했다.

여기에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요원 등이 작성해 국방정보국에 올린 보고서 일체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메모-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광주 관련 부분도 포함됐다.

외교부와 자료 제출 논의를 함께 했던 민간연원들은 “요청 문건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미국과 외교안보에 관련된 문건에 포함될 수 없다”며 “지난 5월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미국 정부에 요청

한 10개 항목의 대부분 내에 있는 문건들 중 정확한 날짜와 작성 내용을 지목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5·18을 전후한 특정 시기와 검색어(Key word)를 지정, 미국 정부 기관들이 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물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국 팀 서클 기자가 1996년 공개한 ‘체로키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국 정부 기관 비밀해제문서 번역본을 토대로 추가 문건들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미국정부가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라타 군사정권을 비호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이관받은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초읽기

준비단, 자격 논란 이동욱 포함 9명에 개인정보 동의서 요청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시기와 검색어(Key word)를 지정, 미국 정부 기관들이 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물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국 팀 서클 기자가 1996년 공개한 ‘체로키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국 정부 기관 비밀해제문서 번역본을 토대로 추가 문건들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미국정부가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라타 군사정권을 비호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이관받은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천된 인물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르면 내달 중순 내에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연내 출범이 현실화된다면 5·18 40주년 내년부터 진상조사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안철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 6명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문화재청 후원으로 23일부터 12월6일까지 부산 KTX역에서 진행되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홍보-전시관을 운영중이다.

부산서 만나는 5·18

12월6일까지 KTX역 맞이방에 기록물 9종 전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다음달 6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알리는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우리의 유산 5·18’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3일부터 부산KTX역 내 맞이방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람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전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전국적·세계적 홍보를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

로 등재된 시민 기록물부터 미국 비밀해제문서에 이르기까지 9가지의 기록물 복사본 등이 전시된다. 관련 영상도 상영되고 있다.

1980년 당시 여고 3학년인 주소연 양의 일기, 한 시민이 작성한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등 유인물, 2018년에서야 빛을 본 미공개 5·18영상도 선보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를 찾아가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공개된 사진첩 진상규명 기폭제 될 것”

5·18단체·정치권,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 증거”

5·18단체와 정치권은 39년 만에 공개된 보안사령부 사진첩이 진상규명 기폭제가 되리라고 평가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1980년 5월 당시의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을 보여준 증거물이고,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안사 연병장 내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인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보안사 기록물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사진첩 공개가 새로 시작할 5·18 진상규명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사진 자료는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양심선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광주시당위원장등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보안사 사진첩 공개를 시작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조속히 출범해 수많은 미공개 자료를 발굴하고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민주광장서 폼페이·왜곡 집회 못한다

광주시의회, 운영조례안 발의...사회적 갈등 방지

오월 광주정신을 폼페이·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는 앞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용집 의원(남구1)이 광주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5·18정신을 폼페이·왜곡하는 행위,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18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질서와 정결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물이나 폐기물 등은 사용 승인 시간 내에 제거하도록 보완했다.

음향 사용은 소음-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조영-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사용 신청자나 단체의 성격을 심의하기 위해 신청일도 기존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서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조례안은 5·18민주광장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상징 장소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은 지난 2017년 12월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민주회의 성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녀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탄압과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5·18정신을 폼페이·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 집회까지 무분별하게 열리면서 5·18민주광장 사용 취지와 광주의 포용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열린 공간으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며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만큼 조금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6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앙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신 571-7658	·오 지 266-7601
	·용 동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 품양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암 월출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적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완도읍 양석리 전방 좋은 자연자산 3306㎡ 휴양시설 등 적합 1억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상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을 5억2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33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산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회기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완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마미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완양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6㎡ 매인 2억 창고 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등 신축기피수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사성재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내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변(경의면) 11050㎡ 다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암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임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